

배포 2025. 5. 19.(월)

캄보디아 학교, 크메르어로 만든 교재로 한국어 공부한다.

- 대한민국 교육부, 한국어-크메르어 교재 최초 개발 및 교원 연수 개최
- 2025년 11월 신 학년부터 학교에서 활용 예정

- 대한민국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한국교육원(원장 길호진)은 국제한국어 교육재단(이사장 임영담)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“캄보디아 맞춤형 교재 활용 연수”를 성료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연수는 2024년 6월 착수한 한국어-크메르어 교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, 현장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재 소개 및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.
 - 특히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와 주캄보디아대한민국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캄보디아 학교에서 사용될 한국어 교재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내었다.

["캄보디아 맞춤형 교재 활용 연수" 개요]

- △ (주최) 호치민시한국교육원, 국제한국어교육재단
- △ (일정/장소) 5.16.(금) ~ 5.18.(일) / 캄보디아 프놈펜 바이통 호텔
- △ (대상) 15개 한국어 채택교의 한국어 교원 17명
- △ (주요 참석자) ^{교육청소년체육부} 교육총괄실장, ^{중등교육국장} 중등교육국장, ^{초등교육국장} 초등교육국장, ^{학교} 한국어 채택교 교장단, ^{대사관} 공사참사관,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원장,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 등
- △ (주요내용) 교재 소개 및 지도 방안 강의·토론, 교재 수록 게임활동 및 자료 제작 실습, 수업계획 작성 및 시연 등

- 그간 캄보디아 학교에서는 한국어-영어로 제작된 범용 교재, 대학생 및 성인 대상 교재 등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해 캄보디아의 문화와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에 한계가 있었다.

- 2024년 6월 교육청소년체육부와 호치민시한국교육원 간 MOU로 희망하는 학교가 자유롭게 한국어 교육을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짐에 따라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재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.
 - 이에 교육부 수탁 기관인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국내 교수진과 캄보디아 현지 교원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한국어-크메르어 교재를 개발하였고, 교육청소년체육부의 검토를 거쳐 2025년 11월 신 학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.
-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교재의 내용과 삽화 등이 캄보디아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학습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.
- 인드라데비(Indradevi) 학교의 벳 나비(Vet Navy) 교원은 "교재에 크메르어가 병기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"이라고 평가하였다.
 - 양국 대표자들도 캄보디아 한국어 교육 내실화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.
 - 교육청소년체육부 응 보랏 차관은 서면 축사에서 "캄보디아 맞춤형 교재는 한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유의미한 수업의 밑바탕이 될 것"이라고 하였으며,
 -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김현수 공사참사관은 "맞춤형 교재를 바탕으로 한국어가 캄보디아 제2외국어로 지정되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기를 바란다"고 하였다.

기관	호치민시한국교육원	책임자	원 장 길 호 진 (84.28)3920-1274
		담당자	한국어교육전문관 엄 미 영 (84.28)3920-1274



○ 개막식



○ 교재 활용 연수



